



불화를 그리는 이란씨의 모습.

“다음 생에는 수행자로 만날 것”

[<영어순해>로 영어교육 신화 만든 김영로 · 이란 부부]

“다음 생에는 부부가 같이 아홉살 이전에 출가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1980년 발간 이래 직독직해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독해교재의 전설 <영어순해>의 저자 김영로 선생(67세)의 첫머리였다.

20여 년간 영어책 수백만 권을 펴낸 김 선생은 부인 이란(57세)과 경기도 광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불서번역과 불화그리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제가 가장 많이 바꿨던 것은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책이 나가고 유명 강사였지만 제가 걸어온 길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여유 없음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김 선생. 물질적 여유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가난해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지금 저의 관심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 뿐입니다. 그간 해온 영어공부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쉽게 가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루 13시간 정도를 번역한다는 김영로 선생은 “하루일과를 오직 불서번역에만 매달리고 있지만 힘든 줄 모르겠다. 불서를 통해 고통 받는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알게 될 거라 생각하니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5년간 불서를 번역한 뒤 그 이후에는 명상센터를 마련해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김 선생은 올해 2월 발행한 <산티데바의 행복수첩(불광출판부)>에 이어 현재는 수행자들이 수행할 때 원하는 불교의 핵심교리를 모은 수행서를 번역 중에 있다. 내년쯤에는 번역을 소멸하고,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수록된 책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인 이란씨도 내년에 첫 불화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30점을 전시하기 위해 불화그리기에 한창인 것.

애초 서양화가인 이란 씨는 5년 전부터 불화만 그려왔다.

“몇 년 전에 우연히 한 보살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탱화를 그리게 됐는데, ‘언젠가 불화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이씨는 “서양화를 할 때는 유명해져야겠다는 욕망이 자주 생겼는데 탱화를 하다보니 욕심이 자꾸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며 “요즘은 탱화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불보살의 사상을 알려주고픈 마음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부는 5년 전 둘째 아들이 직장에 취직하자 서울 세검정에서 경기도 광주로 내려왔다. 그런 다음 오직 ‘수행과 불교포교’만 생각하며 한 순간도 다른 마음을 먹지 않았다.

“5년 전만해도 불자라고 말하기 뭐할 정도였죠. 집사람이 절에 나가며 가끔 집에서 108배를 하기는 했지만,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때 절에 가도 부처님 전에 삼배나 드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옆의 사카무니사에 나가고 불교서적을 보면서 사막의 목마른 낙타가 오아시스를 만난 듯 그대로 심취하게 됐어요.”

“늦게 인연이 되어서인지 속성과정을 이수하는 것처럼 열정이 생기고 힘이 솟는다”는 김 선생은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마음은 나날이 넓어지고 고요해지고 있다”고.

김 선생 부부의 하루 일과는 아침 3-5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어나 1시간동안 부부가 같이 수행을 한다. 그런 다음 아침 공양을 하고 각자의 방으로 가서 작업을 하고, 점심과 저녁에도 함께 공양 후 수행하고 밤 11시에 거실에서 1시간 수행을 한 뒤 12시경 잠자리에 든다.

부부는 작업시간 만큼은 철저하게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다. 그러나 하루일과가 끝나면 작업내용을 보여 주며 서로 따끔하고 꼼꼼하게 경책해주는 도반이기도 하다.

김 선생은 하루 번역한 내용을 부인 이씨에게 보여주고 읽어보고 평가하게 한다. 글쓰기에 대해 잘 모르는 이씨지만 따끔하게 지적하면 김 선생은 얘기를 잘 들어준다.

또 이씨는 그림을 한편 완성할 때 마다 김 선생에게 평가를 구한다. 이씨는 김 선생이 그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신도의 입장에서 불화에 대해 꼼꼼하게 훈수해준다고 한다.

“진리의 길을 같이 가니까 어려움이 반감되는 것 같아요. 수행을 하다가도 의혹이 생기면 서로 의논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지요. 서로 도움이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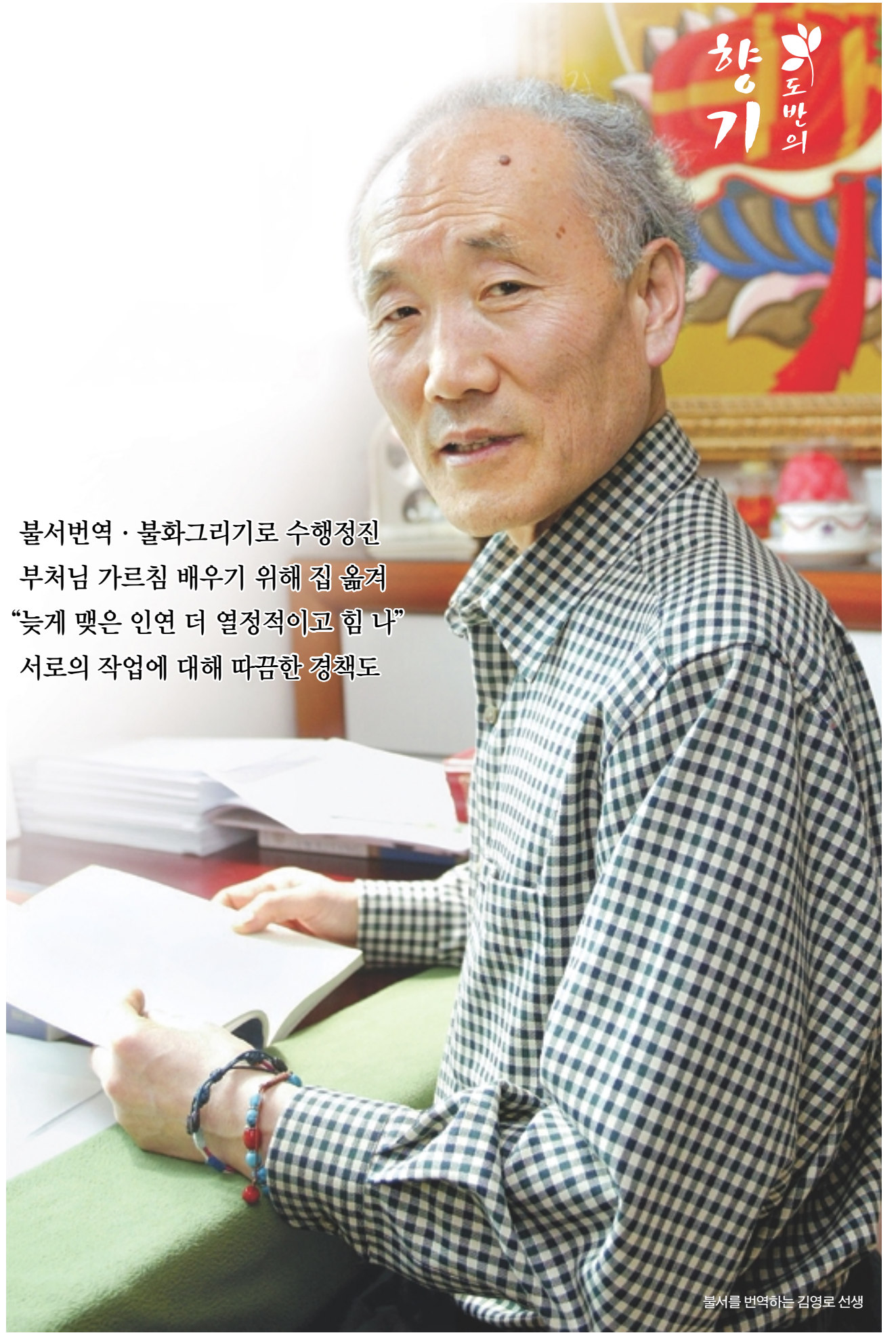
김 선생은 부인 이씨에게 “수행을 더 깊이해서 작품의 완성도가 더 높아졌으면 하고, 함께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런 김 선생의 말에 “좋은 책 많이 쓰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다음 생에서 같은 수행자로 만나자”고 화답했다.

한편 김영로 선생은 서울대 영문학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에 전국대학생영문백일장에서 연속 2회 2등을 했으며,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영어에서 이미 그 두각을 나타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브리태니커 회사에서 한국 관계 기사를 영어로 옮기는 일을 했으며, 송문고, 현대 외국어학원에서 TIME, TOEFL, 영어 작문을 강의했다. 저서로는 <김영로 Vocabulary> <만점토플 독해전략> <영어속독기초> <정통생활영어> 등 다수가 있다.

이란씨는 미국 일리노이 Triton College에서 Fine Arts과정을 수료했다. 1977년 한국수채화협회 공모전에 입선했고, 1999년 현대미술대전에서 특선했다. 단성갤러리, 예술의 전당, 서울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글=김원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불서를 번역하는 김영로 선생

불서번역 · 불화그리기로 수행정진 부처님 가르침 배우기 위해 집 옮겨 “늦게 맺은 인연 더 열정적이고 힘나” 서로의 작업에 대해 따끔한 경책도

2006 대한민국 여성출판도 우수상을 선정(한국일보)
2006 베스트 미뉴비미언 기프트&패션도 선정(스포츠 서울)
책이책 불화신안 및 상품특별

www.magtorin.com

MASTERPIECE OF THE WELLBEING COLLECTION
아주 특별한 선물
마·그·토·린

다가오는 5월 부모님과 은사님께 드리는 효도, 보은, 감사, 사랑의 선물은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로 준비하세요
이제, 소중한 분께 건강을 먼저 선물하세요!

Magtorin Jewelry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는 스테인레스 (또는 신주) 안쪽에 페라이트 자기발을 첨가하고 울라늄이 생성되는 투르말린 실리콘밴드를 결합한 후 원적외선 에너지를 모으는 아이디어 퓨전 웰빙 제품으로 착용감이 좋고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며 코디하기가 쉽다.

단체 주문시 로고 혹은 이니셜 색인 가능
본 제품은 의료용품이나 치료가기가 아닙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마그토린을 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품 사이즈-남(어)-
S : 17.5cm(16.5cm)
M : 18.5cm(17.5cm)
L : 19.5cm(18.5cm)
주문시 사이즈 선택

컬러 구성
원산지: 중국

MT 204T ₩86,000
MTB 207G ₩98,000
MT 203G ₩79,000
MTB 206T ₩98,000
MT 205G ₩86,000

제조 및 판매: 서원SNKO | 제품문의: 02-568-1117 | 국민은행: 443101-01-057676(예금주:최민경)